

辛丑年 새해설계

“변화·혁신 강화 ‘지역 경쟁력’ 제고 최선”



김준성 영광군수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해 ‘문견이정(聞見而定)’의 정신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쉽지 않았지만, 올해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구체적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올해 군정 운영 방향을 경제 위기 극복에 두고 각 분야별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모빌리티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차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센터, 이모빌리티 전원 시스템 평가센터, 소형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 구축 등 지역 핵심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이모빌리티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건강한 농어촌 만들기...관광·문화 인프라도 확충

또한 안마도 일원 528MW 국가해상풍력단지 개발 연구사업, 백수읍 하사리 일원 초대형 풍력발전기 기반 구축사업, 군민 햇빛발전소 등을 차질없이 추진, 지역균형뉴딜 전초기지조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복지동행 테마사업,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을 새롭게 시행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광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꿈꾸는 키즈교실 운영 등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양육의 경제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건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반쪽반쪽 기억찾기 사업 등 선도적인 치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농어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 건강한 농어촌 육성에도 힘쓴다.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시범 운영, 농어민 공익수당, 농업인 월급제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꾸준히 조성한다. 또 농촌고용인력센터 운영으로 계절별 농촌 일손을 적기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사용 교육을 확대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비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 등 차세대 농업 인재를 육성하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여성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지원·양성한다.

전 국민이 누리는 관광·문화·스포츠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온·오프라인 연계 축제 개최, 영광 스마트관광지도 구축 등 비대면 관광콘텐츠를 확충한다. 불갑저수지 수변탐방길 조성, 불갑데마공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 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나

선다.

이와 함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 신종감염병 발생 요인과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한다. CCTV 확대 설치,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스마트배수펌프장 설치 등 스마트통합플랫폼 기반을 조성한다.

이 밖에 행정의 가치와 질을 높이는 열린행정 구현도 중점 추진된다.

김준성 군수는 “부지런한 흰 소의 모습처럼 모든 일에 열정과 끈기를 갖고 군민을 섬기고 소통하며 영광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겠다”며 “행복한 한 해를 만드는 길에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항상 동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나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박차

중·고생 ‘아동참여단’ 출범...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 나주시가 차별화된 아동 정책 발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나주시는 17일 “최근 관내 중·고교 학생들이 구성된 ‘제1기 아동참여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시는 아동참여단 출범을 계기로 아

동의 눈높이를 반영한 아이디어 발굴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개·추천 모집을 통해 선발된 23명의 단원은 놀이·여가, 참여·시민권, 보건·사회서비스, 안전·보호, 가정환경, 교육 등 6대 아동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홍보 콘텐츠 개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동참여단 출범과 함께 나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비전을 내포하는 공식 슬로건(문구)으로 ‘아이랑 함께 꿈꿔요, 나주랑 함께 키워요’를 선정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동 정책 당사자인 아동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기대한다”며 “슬로건 문구처럼 나주의 모든 아동들이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중환기자

해남군, 단호박 기능성식품 소재 규명

항암·당뇨·비만 예방 ‘저항성 전분’...제조기술 특허출원

해남군이 미니단호박에서 추출한 기능성 전분 소재를 최초로 규명하고 가공식품 제조기술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지난해 전남대학교와 함께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을 실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기능성 식품소재 응용 기술 연구를 통해 미니단호박에서 저항성 전분(Resistant Starch)이 다량 함유되었음을 확인했다.

저항성 전분은 인체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위장관 하부를 거쳐 대장에 들어가 장내 유익세균의 증식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상된 세포의 DNA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인체 내에서 느끼게 대사와 소

가능한 전분의 흡수를 방해하면서 당뇨와 비만 예방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내 기능성 식품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연구 결과, 단호박은 열과 수분처리시 품종에 따라 저항성 전분이 51.4~54.7%까지 증가하는 등 연구대상 작물 중 가장 높은 함유량을 보였다.

특히 해남군은 저항전분 함량이 증가된 단호박 전분 제조방법과 단호박 분말 제조방법 특허를 출원, 등록을 추진 중으로 식품 기능성 소재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전남도 주관 시·군 주도 미래선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주도 연구개발 기

획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 등 총 1억원을 투입한다.

해남군은 프로젝트를 통해 단호박 기능성 식품소재(RS) 응용기술 개발, RS 산업적 생산공정·최적조건 연구, 농산물 소재 실증시험센터 구축 기반 마련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저항성 전분 등 소재 추출·가공·상용화 실증시험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산물 소재의 산업적 생산 공정·최적 조건에 대한 기획 연구를 추진해 2022년 정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지역 특산물인 미니단호박에서 식품 기능성 소재가 다량 함유된 것을 확인해 산업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단호박 등 농산물 소재를 활용한 가공식품 상품화와 농산물 소재 실증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목포시보건교사회 소속 보건교사들이 최근 방역을 받고 코로나19 선제검사 현장에서 시료 채취 등 자원봉사에 나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보건교사회, 방역 자원봉사 ‘귀감’

코로나19 선제 검사 지원...의료 인력난 속 보탬

목포지역 보건교사들이 방역을 받고 하고 방역 자원봉사로 나서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무증상 감염자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과 외국인 근로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등에 대해 선제검사를 추진하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목포시보건교사회 보건교사 10명은

지난 11일부터 5일간 목포지역 코로나19 선제검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개인·법인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선제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보건교사들의 선행이 남다른 이유는 헌직에 종사하는 바쁜 상황에도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이 미뤄져 겨울방학 기간도 2주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휴식 대신 코로나19 대응에 나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봉사활동을 주관한 박선화 보건교사는 “보건교사들도 피로감이 누적돼 있지만 같은 의료인으로서 선제검사를 위한 의료인력 부족 소식을 접하고 방역을 담당했다”며 “보건교사는 부모의 마음으로, 교사의 마음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며 ‘건강한 학생, 안전한 학교, 행복한 전남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Advertisement for S.L.T Silver Land Treadmill featuring various treadmill mode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